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3년 12월 4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1.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 12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12월 14일 숙명여대 순헌관 322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정은선 선생님(성균관대)과 노수림 선생님(성균관대)의 기획논문 발표와 정영한 선생님(인하공전)과 김미숙 선생님(상지대)의 일반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노용균 선생님(충남대)께서 'Continuations as a tool for linguistic semantics'를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75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4년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8권 1호 (2014년 6월 30일 발간): 2014년 4월 15일 원고 마감
- 제18권 2호 (2014년 12월 31일 발간): 2014년 10월 15일 원고 마감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 연회비로 3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3년도 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용(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정회원: 강상구(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김미숙(상지대), 엄재일(홍익대), 이기황(다음소프트), 이영주(서울여대), 이용훈(충남대), 이은미(동신대), 이정미(서울과학기술대), 이정민(서울대), 이해윤(한국외대), 임동식(홍익대), 임서현(서울대), 장석진(서울대), 정영한(인하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승권(ETRI), 최윤희(서울대), 홍민표(명지대)
- ▶ 준회원: 구현모(충남대), 김미지(배재대), 김송희(서울대), 박은영(충남대), 송지나(서울대), 윤지현(충남대), 한희우(충남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12월 14일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 순현관 322호에서 열립니다.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아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을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 ▶ 제1캠퍼스 순현관 322호는 (아래 지도 1번) 정문(10번)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 ▶ 윌레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6. 학술대회 안내

- ▶ [CFP] The 10th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WAFL 10)
 - 일시: 2014년 5월 2일~4일
 - 장소: MIT, US
 - 사이트: <http://lingalert.com/2013/07/03/wafl-10>
 - 초록마감: 2014년 1월 15일
- ▶ [CFP] The 7th Conference on Language, Discourse and Cognition
 - 일시: 2014년 5월 3일~4일
 - 장소: Taipei, Taiwan
 - 사이트: <http://homepage.ntu.edu.tw/~cldcntu>
 - 초록마감: 2013년 12월 20일
- ▶ [CFP]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Grammar
 - 일시: 2014년 9월 3일~6일
 - 장소: Osnabrück, Germany
 - 사이트: <http://www.blogs.uos.de/iccg8>
 - 초록마감: 2014년 2월 1일

한국언어정보학회 2013학년도 12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순현관 322호 일시: 12월 14일 9:30 – 13:00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10:30	기획	정은선 (성균관대)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early vs. late bilinguals	유은정 (서울대)
Coffee Break (15분)				
10:45-11:45	기획	노수림 (성균관대)	서사텍스트 이해에서 나타난 노화에 따른 읽기처리 능력의 변화	
Coffee Break (15분)				
12:00-12:30	일반	정영한 (인하공전)	The empty focus particle and the scope theory of <i>even</i>	
12:30-13:00	일반	김미숙 (상지대)	Korean children's acquisition of sequential ordering of attributive adjectives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순현관 322호 일시: 12월 14일 15:00 – 16:30
주제: Continuations as a tool for linguistic semantics

발표자	내용
노용균 (충남대)	
논문	Barker, Chris. 2002. Continuations and the nature of quantification. <i>Natural Language Semantics</i> 10: 211-242. Shan, Chung-Chieh. 2007. Linguistic side effects. In Barker, Chris and Pauline Jacobsen eds., <i>Direct Compositionality</i> , 132-16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년 12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획논문>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early vs. late bilinguals

정은선 (성균관대)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underlying linguistic knowledge of heritage language learners (i.e., early bilinguals) vs. second language learners (i.e., late bilinguals) by examining how they attain implicit knowledge of Korean case ellipsis (CE) that necessitates integration of multiple types of information and poses many learnability problems for the learners. A written elicited production task and an oral picture description task were developed to investigate how monolinguals and bilinguals employ the relevant factors in Korean CE and if certain types of cues are more accessible than others. Following H-J Lee (2006)'s framework of Korean CE, three variables of Focus, Animacy, and Definiteness were examined.

Twenty-three Korean-speaking children (ages 5-7), 42 Korean-speaking adults, 36 heritage language learners of Korean, and 32 second language learners of Korean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 results reveal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underlying linguistic knowledge of early vs. late bilinguals with heritage language learners achieving a higher level of mastery than second language learners. Similarities between early bilinguals and the monolinguals could be found in overall frequency, strength patterns, individual preferences, and the direction in the employment of the three factors. L2 learners, on the other hand, were divergent especially in their use of Focus and displayed a highly variable pattern in their utterances. It seems possible for heritage language learners to attain implicit knowledge of Korean CE, and parallels can be drawn between these learners and monolingual children. Second language learners, on the other hand, showed divergent and variable patterns in their production, which question their ability to acquire the phenomenon. The result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age, context, and mode of acquisition in bilingual acquisition as the learners showed a tendency to depend on factors/cues that are more readily available to them in their respective context and mode of acquisition.

<기획논문>

서사텍스트 이해에서 나타난 노화에 따른 읽기처리 능력의 변화

노수림 (성균관대)

노화로 인한 정보처리속도의 둔화와 인지자원의 감소로 인해 텍스트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본 연구는 노인과 청년의 서사텍스트를 이해하는 동안 여러 등장 인물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서사텍스트 이해에 노화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총 네 개의 실험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첫째, probe recognition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피험자가 새 인물 등장 후 선행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반응 시간과 정확율을 측정했으며, 둘째, 새 인물이 소개되는 문장을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새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반응 시간과 정확율을 분석하였다. 셋째, 등장인물이 이름대신 보통명사(예. 직업)로 소개되었을 때 새 인물 등장 후 선행 인물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반응 시간과 정확율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구운동추적(Eye Tracking) 기법을 활용하여 서사텍스트 이해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노인과 청년의 읽기 특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새 인물이 소개된 후 선행 인물을 기억하는 데 노인이 청년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실험 1), 청년에 비해 노인은 선행인물이 소개되고 난 후 새 인물을 약호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였다(실험 2). 이러한 결과는 노화에 따른 작업기억의 감퇴가 여러 등장 인물들을 표상하고 기억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이름대신 보통명사(직업)로 소개되었을 때(실험3), 새 인물이 소개된 후 선행인물을 기억하는 능력에서 노인과 청년이 유사했다. 이 결과는 노화에 따라 고유명사 즉, 이름을 배우는 능력의 감퇴가, 부분적으로, 노인의 등장인물 기억능력 저하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안구운동추적 결과, 노인은 청년과 비교하여 새 인물이 소개되었을 때 이전 인물을 기술한 소설 앞부분으로의 안구역행(regressions)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역행한 부분의 내용을 더 오래 반복해서 읽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설을 읽고 난 후 내용을 이어가는 능력을 측정했을 때, 노인은 청년과 비교해서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소설을 이어나갔다. 본 결과는 서사텍스트 이해에서 노화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여러 등장 인물들을 처리해야 할 때도 커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Noh, S. R., & Stine-Morrow, E. A. L. (2009). Age differences in tracking characters during narrative comprehension. *Memory & Cognition*, 37,769-778
- Radvansky, G. A., Curiel, J. M., Zwaan, R. A., & Copeland, D. E. (2001). Situation models and aging. *Psychology & Aging*, 16,145-160.
- Stine-Morrow, E. A. L., Noh, S. R., & Shake, M. C. (2010). Ag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nceptual processing strategies on resource allocation in reading.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3, 1430-1455.

<일반논문>

The empty focus particle and the scope theory of *even*

정영한 (인하공전)

The English focus particle *even* can generate ambiguity because in certain contexts its focus can denote both a high and a low end on a pragmatic scale. Since Karttunen and Peters (1979) and Rooth (1985) proposed the scope theory and the lexical theory of *even* respectively to account for this ambiguity,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prove the superiority of one over the other. The present paper offers novel evidence against the lexical theory. More importantly, to remedy some of the weaknesses of the scope theory, the present study tries to refine the concept of free focus proposed by Wilkinson (1996), by positing an empty focus particle (EFP) based on Korean data. The EFP introduces a constituent describing new information. This constituent is the focus of the EFP and usually serves as the topic of a given sentence. The adoption of the EFP can help solve some of the problems with the scope theory and clearly explain some puzzling cases of double focuses. This paper is concluded with some remarks on cross-linguistic variations.

Selected References

- Guerzoni, E. 2003. *Why Even Ask? On the Pragmatics of Questions and the Semantics of Answers*. Doctoral dissertation. MIT.
- Hoeksema, J., and H. Rullmann. 2001. Scalarity and Polarity: A Study of Scalar Adverbs as Polarity Items. Hoeksema, J., H. Rullmann, V. Sanchez-Valencia, and T. van der Wouden (eds). *Perspectives on Negation and Polarity items*, 129-171. Amsterdam: Benjamins.
- Israel, M. 1996. Polarity Sensitivity as Lexical Semantic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9, 619-666.
- Kadmon, N., and F.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353-422.
- Karttunen, L., and S. Peters. 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Oh, C.K. and D.A. Dinneen (eds). *Syntax and Semantics 11: Presuppositions*, 1-55. New York: Academic Press.
- Kempson, R. 1975. *Presupposition and the Delimitation of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König, E. 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London: Routledge.
- Lahiri, U. 2012.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Some Scalar Expressions in Spanish. *Anuario del Seminario de Filología Vasca Julio de Urquijo* 42.2, 359-389.
- Lee, Y-S. and L. Horn. 1994. *Any as an Indefinite Plus Even*. ms, Yale University.
- Nakanishi, K. 2012. The Sope of Even and Quantifier Raising. *Natural Language Semantics* 20, 115-136.
- Rooth, M. 1985. *Association with Focu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Rullmann, H. 1997. Even, Polarity, and Scope. Gibson, M., G. Wiebe, and G. Libben (eds). *Papers i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Linguistics* 4, 40-64. Edmonton: University of Alberta.

- Schwarz, B. 2005. Scalar Additive Particles in Negative Context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3, 125-168.
- Von Stechow, A. 1990. Current Issues in the Theory of Focus. Von Stechow, A. and D. Wunderlich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804-825. de Gruyter, Berlin.
- Wilkinson, K. 1996. The Scope of *Even*. *Natural Language Semantics* 4, 193-215.

<일반논문>

Korean children's acquisition of sequential ordering of attributive adjectives

김미숙 (상지대)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re than one attributive adjectives functioning as a noun modifier show relatively fixed sequential order. For example, subjective adjectives like *pretty*, *nice*, or *delicious* appear before descriptive adjectives like size, shape, or colour when two adjectives at the same time modify a noun. In addition, adjectives describing size, shape, and colour show relatively fixed sequential order: size < shape < colour < nou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sequential ordering constraint on adjective co-occurrences is based on the iconic principle of proximity. This indicates that some adjectives that are conceptually more strongly related to the noun are also syntactically close to it. More specifically, the subjective (qualifying) adjectives are least close to or most distant from nouns, and descriptive adjectives are close to the semantic nature of nouns. This paper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quential ordering constraint found in English could also be found in other languages like Korean. In this study, Korean adults and children aged 5-6 were tested by the picture-production task.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sequential ordering among descriptive adjectives, Korean children and adults show the sequential ordering constraint on adjective co-occurrences found in many languages.